

a+u

건축문화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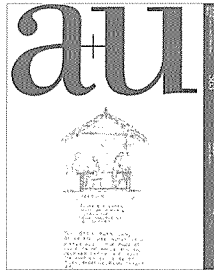
Domus

Architecture

a+u

2000년 12월호

이번 호에서는 인도의 건축가 로리 베이커(Laurie Baker)의 작품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로리 베이커는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출신 건축가로, 인도의 풍토와 인도인의 사회와 문화에 맞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주택 및 공공 건물들이 소개되고 있다.

■ 특집: 로리 베이커

▶ 인도의 영국인 건축가: 로리 베이커는 1917년 영국의 버밍햄에서 태어나 버밍햄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RIBA)의 회원이었던 그는 1945년 인도에 정착한다. 그 후 인도의 산업, 경제수준, 문화, 기후와 풍토 등을 고려한 그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신의 건축관에 관한 다음의 말을 보면 그의 인도인과 인도건축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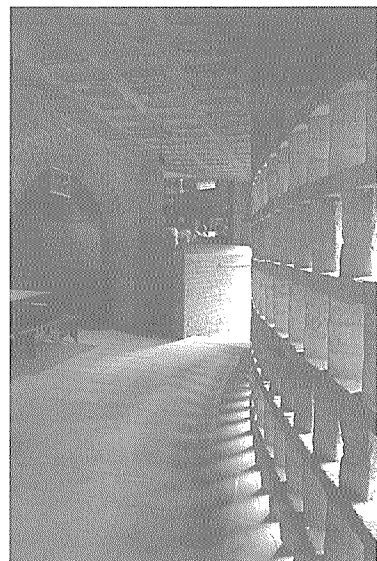
▶로리 베이커의 건축관: 다음의 그가 자신의 건축철학을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소위 보통 사람들의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건축을 배운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든 건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값싸고 또한 가장 단순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공업자 마저 고용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건설한다. 예를 들어 노래된 건물의 복제 격자세공에 쓰여진 무수한 작은 구멍들, 그것들을 통해 강렬한 광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하는 점에 그들의 작업의 편린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리창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

리트벽은 분명히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태까지 나는 인도사람들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 왔다. 심지어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나의 고객이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인이 공통적으로 필요로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건축가로서 '로리 베이커의 건물'이라는 기념비를 세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보다, 예를 들어 모한 신과 그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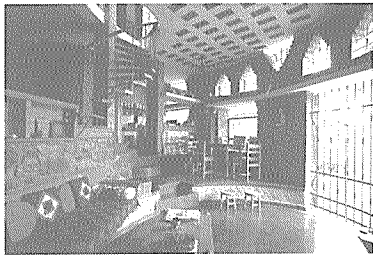
▶작품: 소개된 그의 작품들은 '건축가의 자택', '연구개발센터', '코퍼스



건축가의 자택



코퍼스 크리스티 스쿨



돌라스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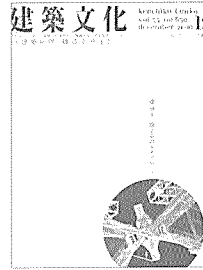
크리스티 스쿨(Corpus Christy School), '남부드리파드(Nambodripad)저택', '성 요한 성당', '시바나단(Sivanadan)저택', '날리나야크(Nalininayak)저택', '존 제이콥(John Jacob)저택', '돌라스저택', '질라 팬카야트(Zilla Panchayat)사무소', '어부들의 집합주택 콜로니', '지방 산업 교역 협회관', '안간바디(Anganvadi)탁아소' 등으로 주택과 지역사회의 공공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택 작품들 중에는 다소 큰 규모의 주택들도 있지만 그만의 비용 절감을 위한 매뉴얼이 있을 만큼 그는 인도의 풍토와 기술력, 지방의 재료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인도인들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어부들을 위한 집합주택 콜로니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의 애정이 느껴지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만이 그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더니즘의 조형언어에 인도의 토속적인 공법, 그리고 이들을 주의 깊게 혼합하여 만든 로리 베이커만의 형태언어가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풍경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도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의 연구는 그에게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안겨다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들의 벽돌쌓기를 통해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디테일들을 완성시키고 있으며, 벽돌로 이루어진 아치와 격자무늬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강렬한 빛들의 연출은 지역성과 융합하여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건축문화

2000년 12월

이번 호의 특집은 '건축을 여는 구조디자인-건축가와 구조가의 다이알로그'라는 제목으로 건축

가와 구조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건축가와 구조가의 협력관계. 실제 작품들을 두고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답을 통해 이러한 협력작업의 가능성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 특집: 건축을 여는 구조 디자인

▶ 건축가와 구조가의 협동: 건축에 있어서 재료나 기술의 개발은 건축의 형태나 시공기술에서 재료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들 기술혁신이 구조시스템의 전개에 공헌하였으며,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거대한 건축공간의 출현은 20세기의 건축을 특징 지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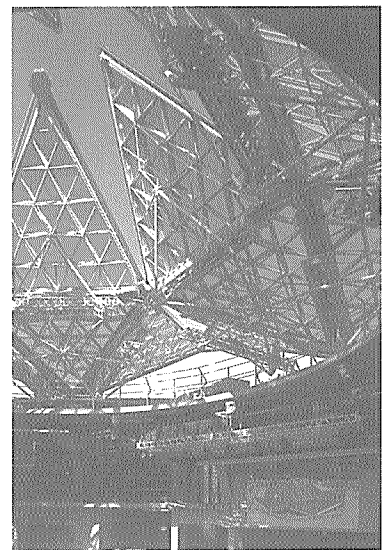
다양한 실제작품에 의한 시도를 통해 구조해석기술도 혁신적으로 오늘날, 이들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활용하여 건축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건축 전체의 비전과 함께 엔지니어링을 생각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금후 이제까지 이상으로 긴밀한 건축가와 구조가의 협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축으로 한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답을 통해 현재 어떠한 건축·구조디자인이 요구되어 어떠한 프로세스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탐구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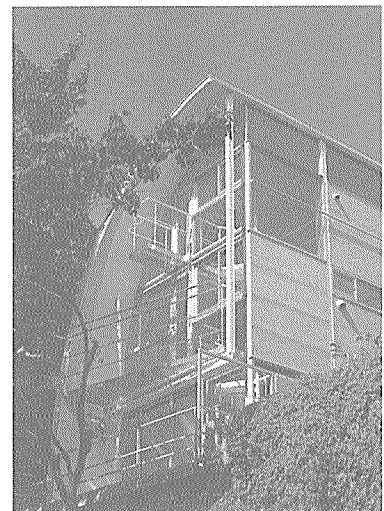
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하고 있다.

▶ 인터뷰와 대답: 먼저 '건축가는 구조디자인에 어떻게 관계 맺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건축가 반 시게루(坂茂)과의 인터뷰로 시작하고 있다. 하노버 만국박람회 일본관 등 주로 그의 작품을 예로 들어가며 구조가와 협력관계, 새로운 디자인을 허용해줄 법적 문제, 새로이 탐구된 재료의 성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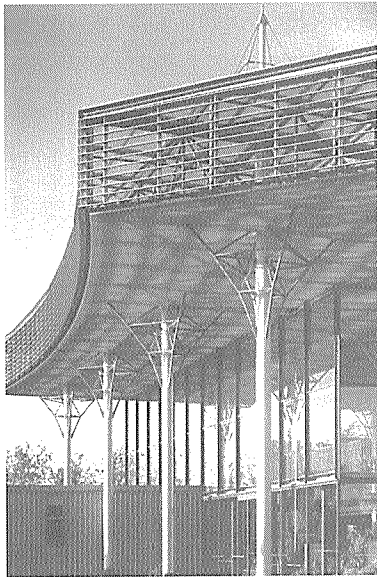
이어서 건축가와 구조가 한 명씩이 한 작품을 두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4개의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수록된 작품과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성과 이성의 임계점 - 札幌미디어



札幌미디어파크 스피커



M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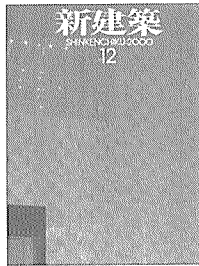
縣立北總化的 丘公園 꽃과 녹지의 문화관

春) × 와타나베 쿠니오(渡辺邦夫), '소재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단숨에 풀어버린다 - M오피스: 엔도 마사키(遠藤政樹) × 이케다 마사히로(池田昌弘)', '네트워크가 「최소한으로 최대의 것」을 인도하다 - 縣立北總化的 丘公園 꽃과 녹지의 문화관: 이이타 요시히코(飯田善彦) × 이마가와 노리히데(今川憲英)', '건전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비어있음」의 미 - 오렌지 플랫폼: 하사가와 이츠코(長谷川逸子) × 알란 버든(Alan Burden).
 ▶ 컬럼: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담에 이어 본 주제에 대한 에세이에 해당하는 글들이 대담들의 사이사이에 수록되었다. '다른 분야와의 연휴(連携)', '토목 스케일의 디자인 수법', '하이브리드 구조의 가능성', '디자인과 기술의 플렉서빌리티' 등의 글이 각각 저자의 대담, 에세이, 인터뷰의 채록 등의 형식으로 실렸다.

신건축

2000년 12월호

이번 호에서는 이토오 슈오(伊東豊雄)이 심사를 맡았던 '신건축주택설계경기 2000'의 결과 발표를 작품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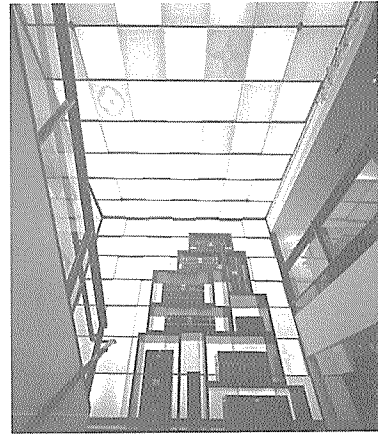


개에 앞서 게재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쿠로카와 키쇼오의 瀑看席(O邸茶室), 竹原義二의 蓬萊·玄의 이틀리에 등 짙은 일본적 정서가 느껴지는 작품들과 아오키 준(青木淳)의 루이뷔통 긴자(Louis Vuitton Ginza), k/o 디자인 스튜디오의 리테일 스페이스(Retail Space 1.2) 등 소규모 상업용도 건물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 신건축주택설계경기2000결과발표 '파이널 하우스(Final House)'라는 과제가 부여되고 이토오 슈오가 심사를 맡았던 이번 설계경기는 신건축지에 결과가 발표된 다른 설계경기와 달리 이례적으로 작품들의 소개에 앞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1등상은 일본 동북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북대학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錦織眞也가 수상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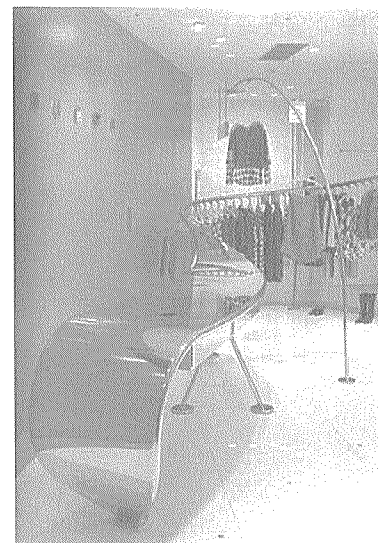
▶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긴자': 아오키 준은 얼마전 99년 10월호에 소개된 루이뷔통 나고야를 디자인 하였다. 이번 긴자점도 같은 디자인이다. 격자 무늬를 넣은 2겹의 유리를 통해 입면을 연출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도 똑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전 한국의 압구정동에 완성된 루이뷔통 상점도 유사한 디자인이다. 아오키 준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긴자'

은 이번 작품의 소개 이외에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에세이를 이번 호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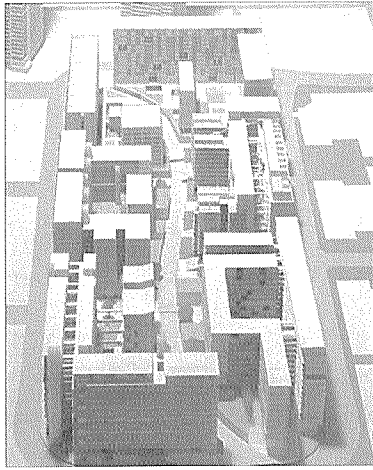
▶ 퓨퍼시스템(Future System)의 마니 긴자(Marni Ginza) 점도 이색적이다. 샷의 내벽을 곡면으로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곡면들로 처리된 옷걸이와 책상 등을 디자인해 배치하였는데, 옷걸이와 전시대 등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 옷걸이가 차차 전시대로 바뀌는 형태를 취했다. 요즈음엔 보기 드문 디자인이다.



퓨퍼시스템의 마니 긴자

■ 東雲집합주택계획

세기말에 도달하여 동경의 도심에서는 버블경제가 붕괴한 후 토지의 재편,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東雲집합주택계획

이 동운집합주택계획도 본래 공업지역의 재개발이다. 부지는 지하철 有樂町선의 辰巳역과 豊洲역 사이의 辰巳운하와 東雲운하로 둘러싸여진 매립지. 상업·관광의 거점으로서 개발중인 有明이나 台場に 인접한 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을 공설한 집합주택의 계획안이다. 제1기의 AB街區를 시작으로 CD, EF 등 총 6街區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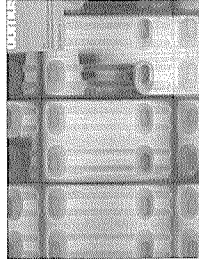
가족구성 라이프스타일 등 수요자층이 점점 다양화되어가는 가운데, 건축가는 어떻게 주거환경을 제안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번 계획안에 제시된 6팀의 안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참여한 건축가들은 아마코토 리켄, 이토 슈오, 쿠마 겐코와 RIA, 아마설계 공방 등이다.

Domus

2001년 1월호

기존 건축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상업 건축에 대해 새로운 조명을 하고 있는 본 호에서는 Mandari-



na Duck, Giorgio Armani 등 새로운 상업점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사례들과 아울러 이러한 시설들의 중요성을 재고해보는 렘 콜하스의 글 Junk Space가 게재되어 있다.

■ 렘 콜하스의 Junk Space

▶ 행사 소식에서 소개된 전시회 Mutations에서 콜하스는 최근 건축관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Junk Space를 제시했다. 근일 출간 예정인 쇼핑에 관한 저서의 부분 발췌이기도 한 이 글에서 그는 쇼핑 센터가 근대 발명품인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탄생하여 상업 문화의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쇼핑 센터가 레저 시설, 박물관, 공항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과 접목되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 시설, 도시적 경험의 척도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쇼핑에 대해 이제 우리는 지식인의 직관에 따른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근대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정수로서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으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Junk Space)을 제시해주고 있기도 하다.

■ 상업 인테리어 건축

▶ Droog Design의 Mandarina

Duck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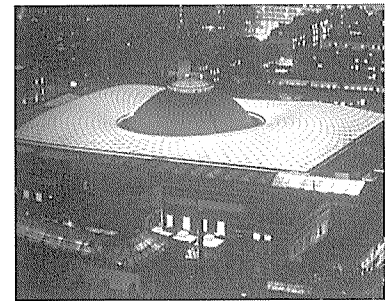


일관되지 않은 개성있는 상점들로 상권을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Mandarina Duck은 파리 rue Saint-Honor 상점 디자인을 Droog Design과 NL Architects에게 맡겼다. 형태 위주의 사고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장 객관적인 해결안을 추구하는 Droog Design은 이 상점에서 고무밴드와 핀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유리 섬유를 통한 공간의 분할 등 새로운 실험들을 시도해 보았다.

상점 계획의 다른 사례들로 ▶ 밀라노 Giorgio Armani 상점, ▶ John Pawson의 Bulthaup 상점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근작 소개

▶ Norman Foster의 British Museum 리노베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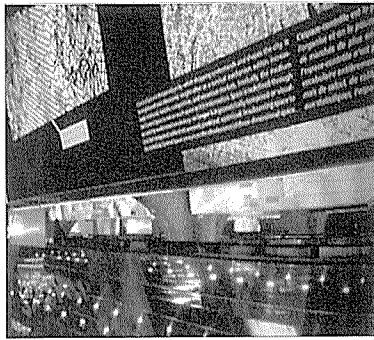
Robert Smirke 경이 설계한 고전 건물군의 중심부에 대한 리노베이션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Foster의 계획안이 완공되었다. Buckminster Fuller 와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유리 돔 구조는 중심부를 실내화하여 매년 5백만

명이 몰리는 박물관의 복잡한 동선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 Williams & Tsien의 미국 Cranbrook 고등학교 계획이 소개되었다.

■ 행사 소식

▶프랑스 Bordeau의 L'Arc-en-Rêve 건축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Mutations



3월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렘 콜하스가 프로그램 구성을, 장 누벨이 전시 디자인을 맡았다. 비디오, 사진, 글 등을 복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Mutations는 각 대륙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상을 되짚어보면서 서구의 도시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된 데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던 자연 발생적인 도시 현상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창조물 중 가장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관계를 제시해주는 동시에 그것에 절대적인 한계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이탈리아 밀라노 Fondazione Prada에서 1월7일까지 열린 Carsten Höller 작품 전시회, 미국 뉴욕 윌트니 미술관에서 2월25일까지 열리는 컨셉슈얼 미술가 Sol Le Witt 회고전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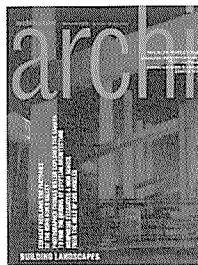
■ 기타

▶디자이너 Jeremy Edwards가 일상 삶 속에서 발견한 익명의 디자인 제품 사진 모음, ▶Valencia Biennale 준비 소식, ▶제1회 Borromini 상 시상 결과, ▶주변 사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있는 독일 철물사 FSB의 최근 출판물 The Hands of Le Corbusier, ▶이탈리아 대도시 역에 대한 리노베이션 계획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저서 비평 코너에서는 Carlos Raúl Villanueva 건축作品集, Frank Lloyd Wright - Europe and Beyond, Lars Lerup의 After the City 등을 다루었으며, ▶Charles Jencks의 최신 저서 Le Corbusier and the Continual Revolution in Architecture의 일부분이 수 페이지에 걸쳐 발췌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2000년 11월호

대지와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한 건축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호는 이러한 사례로 Moshe Safdie,



Perkins & Will, Morphosis의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버려진 공장을 새로운 유흥지로 탈바꿈시킨 독일 Ruhr의 사례를 표지 이야기로 다루었다.

■ 설계 경기 제도에 대한 개혁안

최근 설계 경기에 계획안이 당선되고 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수많은 간섭에

의해 원안이 파괴되거나 아예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에서,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 종합된 심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설계 경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델이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안 단계 이후의 작업에 대해 설계비를 제대로 받는 것, 경기 규칙이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정의될 것, 그리고 건축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동의 하에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의 개선책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 문화



독일 Ruhr 지역의 테마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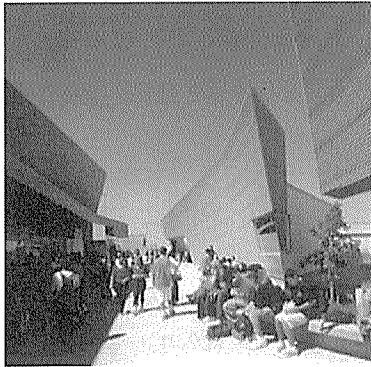
▶독일 Ruhr 지역의 버려진 공장 지대가 테마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산업화에 따라 황폐해졌던 주위 자연 경관은 다시 복구되었으며, 기존 공장 건물들은 각종 레저 활동의 장으로 개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생시키는 방법을 실천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대지 건축

건축과 대지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경향은 건축 이론가 Christian Norberg-Schulz의 존재론적 이론에서 시작하여 현재 세계 각지의 최신 건축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Morphosis와 Thomas Blurock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Diamond Bar Diamond Ranch 고등학교



구깃구깃 접힌 면들이 연속해있는 형상은 주위 자연 경관과 연속을 이루면서 전체 건물군의 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사이로 난 다이내믹한 외부 공간들은 서로 다른 레벨을 램프를 통해 이어주는 등 고등학생들의 이용 행태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 상점 거리의 이미지를 빌어오는 동시에 그 개방 부분들을 통해 주위 자연으로 시선을 열어주고 있다.

▶Moshe Safdie and Associates의 미국 캔서스 주 Wichita 탐험 과학관과 어린이 박물관

두 개의 건물군으로 구성된 본 박물관은 요동하는 지붕 형태들을 통해 주위의 평탄한 프레리 지형에 대해 대조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전시장을 담은 건물은 호수에 인접해 섬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 연결된 육지 부분에 강당, 사무실, 로비 부분을 수용한 건물이 들어서 있다. 기하학을 변형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호수와 평지가 어우러진 주위 환경에 대해 또한나의 경관을 창조해내고 있다.

그 외에 ▶Scott Tallon Walker의 아일랜드 County Wexford Oulart Hill에 있는 Tulach a'tSolais, ▶Perkins & Will의 미국 시카고 과학회 Peggy Notebaert 자연 박물관, ▶도시 속의 구릉 언덕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Antoine Predock의 미

국 미네소타 주 Minneapolis 미네소타 대학 McNamara 동창회관, ▶Loom의 미국 미네소타 주 St. Paul 여성 참정권 기념 공원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아울러 피라미드, 스프링크스 등 고대 이집트 건축물들과 사막 지형의 유사점을 보여주는 Thomas Miller의 사진과 글이 게재되어 있어 건축의 기원에 있어서 대지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 향의

미국 뉴욕 타임스 광장에 신축된 Fox & Fowle의 새 Reuter 타워는 최고의 연면적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난잡한 형태를 갖고 있다. 도시 속에서 그 덩치를 숨기기 위해 그 표면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양식들로 조합시키는 것은 건축물의 정체성 부재만을 가져올 뿐이다. Christian de Portzamparc의 LVMH 빌딩 등 인근의 사례에서와 같이, 오히려 통일되고 우아한 디자인을 부여하는 것이 도시 맥락에 더 어울린다.

■ 기타

▶미국 뉴욕 Cooper-Hewitt 국립 디

자인 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Paul Warwick Thompson과의 인터뷰, ▶Chrysler 디자인 상 수상작, ▶백악관 담장 철거 계획, ▶Hans Hollein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구겐하임 미술관 계획, ▶Renzo Piano의 일본 간사이 공항 침수 문제, ▶미국 Seattle 건축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Microsoft 공동 창업자 Paul Allen 이야기, ▶Steelcase의 철재 건축 사무소가 지닌 장단점, ▶강화된 내구성을 보여주는 High-volume fly-ash 콘크리트, ▶유명 건축물들을 추상적으로 카메라에 담아온 Hiroshi Sugimoto의 사진 작품들, ▶곤충에 대한 연구를 건축에 접목시킨 짐바브웨 건축가 Mick Pearce에 대한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다.



미국 캔서스 주 Wichita 탐험 과학관과 어린이 박물관